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코스닥
5478.70 (+426.24)	1116.18 (+63.79)
▼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370 (-0.182)	1501.55 (-28.55)

이란 “종전 의향”... 트럼프 “2~3주내 작전 종료”

중동전쟁 종지부 기대감

이란 대통령 “침략 방지 보장시 분쟁 끝낼 의지” 한층 누그러져
美 트럼프, 오전 10시 관련연설
코스피·환율 등 전일비 진정세

중동전쟁에서 트럼프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는 게 중론이다. 잦은 번복 탓에 시간은 이란에 주어져 있다는 것. 마침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의지를 내비치면서 상황은 급변하는 분위기다.

1일 전 세계 시장은 환호했다. 다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입장은 자국 대통령 입장과는 결이 다른 양상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하는 전쟁'에 대해, 그가 자기만의 방식대로 사태를 이끌어 온 것이라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는 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연설을 예고했다. 미동부시간 1일 오후 9시(한국 2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고 캐틀라인 레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종식이 이번엔 진짜 성사될지 관심을 모은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간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의 회에서 '필수조건' 충족을 전제로 종전에 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그는 “우리는 필수조건이 충족될 시,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보여 온 강경 및 대응·항전 태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여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못 박고 있다.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대 이란 군사작전을 2~3주 내에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크게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간만에 진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오름세도 장중 한때 주춤했다. 다만 한국시간 오후 3시 기준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는 흐름을 보였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불허

금융위,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역원 “GDP대비 부채비율 높아
부동산 시장-금융 절연하게 할 것”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에만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역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절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 제한’
금융위는 은행권의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 증가율(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로 제한하고, 2027년도 목표에도 추가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시 정책서민 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확실적 규제에 의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 중인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서 배제한다.

또한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했으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모바일,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4년 역사에 '뉴메트로 선인' 11주년을 맞이하는 메트로경제와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메트로빌딩)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2면에 계속>

metro

3월 수출액 사상 첫 800억 달러 돌파

산업부, 전년 대비 48% 증가
무역수지 역대 최대 흑자 기록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 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단일 품목으로만 300억 달러를 넘었고, 무역수지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출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86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1위 기록이다. 특히 2025년 12월 기록한 69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37.4억 달러(+41.9%)를 기록해 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로써 수출은 10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공급망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상승 흐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328.3억 달러(+151.4%)로, 단일 품목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일반 서버향 수요 증가가 맞물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이 전년 대비 수 배 이상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靑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한 바 없어
▲정청래, 김재섭 ‘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제기’에 “법적 검토 지시”...당 차원 대응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李 대통령, 부산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 해명해야”
▲장동혁 “서울에서 ‘반값 전세’ 추진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것”

▲안철수 “세금 90% 내는 30% 국민은 지원금 제외...세금 낼 때만 국민”
▲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 받아...대통령 연봉 약 5배